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4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4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4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6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7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8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8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9
III. 경영참고사항	10
1. 사업의 개요	10
가. 업계의 현황	10
나. 회사의 현황	16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23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 승인	23
<input type="checkbox"/> 정관의 변경	71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선임	76
<input type="checkbox"/>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82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85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86
가. 제출 개요	86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86
※ 참고사항	87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년 2월 23일

회 사 명 : (주)신세계
대 표 이 사 : 박 주 형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63
(전 화) 02-727-1921
(홈페이지)<http://www.shinsega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주)신세계 지원본부장 (성 명) 우 정 섭
(전 화) 02-727-192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69기 정기 주주총회)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69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26년 3월 24일(화) 오전 10시 00분
2.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3. 보고사항 : 감사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 보고, 최대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4. 회의목적사항
 - 제1호 의안 : 제69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제 2-1호 의안 :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 제 2-2호 의안 : 상법개정에 따른 변경
 - 제 2-3호 의안 : 보선 관련 이사의 임기 명확화
 - 제 2-4호 의안 : 분기 배당 절차 개선
 -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우정섭)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최난설현)
 -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결정의 건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제62기 정기 주주총회부터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3월 14일 오전 9시~ 2026년 3월 23일 오후 5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공인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 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등록전환 대상 주식 등 실물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되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시어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전환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sd.or.kr → 전자증권제도 → 제도 시행일의 전환 → 전환 대상 종목)

7.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법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
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 하시거나 또
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님의 편의를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
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곽세봉 (100%)	김한년 (100%)	최난설현 (100%)	강경원 (100%)
			찬 반 여부			
1회	2025.01.20	임원 하반기 성과급 지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임원 보수 인상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회	2025.02.05	제68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68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배당기준일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SSG.COM 판매대행(위수탁) 재계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인천신세계 유상증자 참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계열회사간 임대차 계약 해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4년 실적 및 25년 경영계획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회	2025.02.19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제6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자기주식 소각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자기주식 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준법지원 활동 결과 보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2025년 3월 20일 강경원 사외이사가 퇴임하였습니다.

※ 2025년 3월 20일 곽세봉 사외이사, 김한년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 2023년 3월 20일 진희선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곽세봉 (100%)	김한년 (100%)	최난설현 (100%)	강경원 (100%)
			찬 반 여 부			
4회	2025.03.20	제68기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른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정보시스템 관리용역 계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신세계마켓 청담점 공사 계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회	2025.04.15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참석	참석	참석	참석
6회	2025.07.17	계열회사와의 임대차계약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임원 상반기 성과급 지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5년 상반기 경영실적	참석	참석	참석	참석
7회	2025.09.29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회	2025.10.21	인천신세계 유상증자 참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최근 정보보호 사건사고 현황	참석	참석	참석	참석
9회	2025.11.12	신세계디에프 신종자본증권 지급보증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0회	2025.12.09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1회	2025.12.16	안전 및 보건 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사채 발행 한도 위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밸류업 이행평가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 69기 정기 주주총회 기준일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곽세봉(위원장),강경원,최난설현,박주형,홍승오	2025.02.05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가결
		2025.03.20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곽세봉(위원장),진희선,최난설현,박주형,홍승오	2025.12.16	사외이사후보군 관리의 건	보고
내부거래위원회	최난설현(위원장),김한년,홍승오	2025.03.20	정보시스템 관리용역 계약의 건	가결
			신세계마켓 청담점 공사 계약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김한년(위원장),강경원,최난설현	2025.02.19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보고	보고
			내부리스크 통제활동 실적 및 계획	가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가결
			사업연도 감사위원회 회계업무 감사 결과	가결
	김한년(위원장),진희선,최난설현	2025.03.20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2025.04.15	외부감사인 감사 계획 보고	보고
			2025년 비감사용역 계획 승인의 건	가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보고
		2025.07.17	내부회계관리제도 계획 보고	보고
			외부감사인 감사진행 경과 보고	보고
		2025.12.16	내부리스크 통제활동 실적 및 계획	가결
			내부회계관리 경과 및 계획 보고	보고
2025.12.16	2025년 연말감사 계획 보고	보고		
ESG위원회	진희선(위원장),곽세봉,홍승오	2025.03.20	ESG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2025.04.15	ESG활동 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보고
			ESG 중개성(Materiality) 보고의 건	보고
			탄소중립 및 환경경영을 위한 투자 심의의 건	가결
		2025.10.21	ESG활동 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보고
탄소중립 및 환경경영을 위한 투자 심의의 건	가결			
보상위원회	곽세봉(위원장),김한년,홍승오	2025.01.20	임원 하반기 성과급 지급의 건	가결
			임원 보수 인상을 승인의 건	가결
		2025.02.19	이사보수한도 결정의 건	가결
		2025.03.20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2025.07.17	임원 상반기 성과급 지급의 건	가결		

※ 2025년 3월 20일 강경원 사외이사가 퇴임하였습니다.

※ 2025년 3월 20일 경영이사회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진희선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20일 6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진희선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20일 경영이사회에서 ESG위원회 위원으로 진희선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4	7,000	336	84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총 7명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유상증자	(주)인천신세계 (계열회사)	2025.02.05 2025.10.21	350	1.8
임차료	(주)신세계센트럴 (계열회사)	2025.01.01~ 2025.12.31	1,223	6.1
임차료	(주)스타필드 하남 (계열회사)	2025.01.01~ 2025.12.31	200	1.0
건설용역	(주)신세계건설 (계열회사)	2025.01.01~ 2025.12.31	448	2.3
건설용역	(주)신세계건설 (계열회사)	2025.01.01~ 2025.12.31	372	1.9
위탁수수료	(주)에스에스지닷컴 (계열회사)	2025.01.01~2025.12.31	651	3.3
상품권제휴	(주)이마트 (계열회사)	2025.01.01~2025.12.31	559	2.8
경영수수료	(주)신세계동대구CTC (계열회사)	2025.01.01~2025.12.31	294	1.5

※ 상기 비율은 2024년 별도기준 매출총액 대비 비율임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주)신세계센트럴 (계열회사)	임차료 등	2025.01.01~2025.12.31	1,616	8.1
(주)신세계건설 (계열회사)	건설용역 등	2025.01.01~2025.12.31	1,200	6.0

※ 상기 비율은 2024년 별도기준 매출총액 대비 비율임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 백화점업

(1) 백화점판매

1) 산업의 특성

백화점은 대형판매시설을 통해 다양한 상품구성과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첨단 유행을 선도하는 업태입니다. 판매시설 이외에도 식당가, 시네마, 문화센터 등 서비스 시설 및 다양한 문화강좌와 각종 이벤트로 도시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최근 개발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등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통상 고객이 내점하여 소비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지산업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재한 입지의 상권규모, 교통환경, 경쟁점포 현황, 접근성 및 주차시설 확보 등 다양한 입지여건이 각 점포 및 기업의 경쟁역량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이며, 기 확보된 영업점포의 경우 경쟁점 출점을 제외하고는 입지여건 변동에 따른 위험 변동성은 낮습니다.

또한 부지확보 및 건축 인테리어 등에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소요될 뿐 아니라 신규 출점시 기존 점포의 견제, 판촉비 부담 등으로 초기 진입비용이 타 업태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백화점 업계는 지방 소재 중견기업들이 외환위기를 전후로 상당수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M&A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후 상위업체 중심으로 신규 출점 및 증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처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대형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과점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상권 내 Leading Store로의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소 백화점의 인수/합병 및 경영체휴 등을 통한 시장 재편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다른 유통업태들과 차별성을 강조하는 형태로의 진화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백화점 산업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한 성장을 둔화 기조 속에서 대형 점포 중심의 매출 쏠림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여 백화점 업계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과 체험형 공간 리뉴얼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 이를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 백화점 매출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2025년	2024년	2023년
매출액	41.3	40.6	40.5
신장율	1.7%	0.3%	7.2%

- 자료출처 : 통계청

3) 경기변동의 특성

백화점은 내수산업으로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으며 국내 경기변동, 특히 민간소비 동향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금리, 인플레이션, 성장률, 실업률 등의 요소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품목인 의류, 잡화 등 고마진 상품은 여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업계는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고소득층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 고급화 전략을 지향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으로는 비교적 개별단가가 높은 겨울 의류상품의 판매, 사은행사 등의 영향으로 4분기의 매출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4) 경쟁요소

점포망 구축과 브랜드 충성도 확보를 위해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사업특성상 국내외 잠재기업의 시장 진입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며, 대체품의 성격을 지닌 고급전문점이 국내에서 활성화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백화점 업계는 잠재적 진출기업이나 대체재에 의해 경쟁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백화점 업계는 일부 상위 업체들간의 경쟁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브랜드 인지도, 구매협상력, 전국적으로 구축된 네트워크, 양질의 상권에 시장선점을 통해 확보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형 백화점들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최근에 등장한 해외직구, 온라인, 아울렛 등의 신유통업태의 성장에 따라 백화점 업계는 업계내의 외형 경쟁만으로는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화 전략에 취약했던 지방 백화점들은 온라인, 아울렛 시장이 확대되면서 경쟁심화에 따른 매출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백화점 업계는 소비양극화 및 가치소비(본인의 가치를 높이고 본인의 심리적 만족을 위해 고가품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소비형태) 트렌드에 기반한 수요측면의 변화와 성숙기 시장에 대비한 고객관리 강화 및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인 복합쇼핑몰 개발, 프리미엄 아울렛, 온라인 부문 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체질개선 노력을 통해 해외 백화점과 달리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백화점 업계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 나가는 동시에, 양질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싱처를 발굴하고 있으며, 명품 브랜드 입점 등

고소득층에 대한 마케팅 강화, 20~30대 신규 고객을 위한 트렌디 MD 보강으로 매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대폭 증가시켜,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닌 '쇼핑 그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백화점으로서 타 유통업체보다 넓은 영역에서 경쟁하며 효과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구분	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 전면 금지
주차장법	지자체장은 신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담
유통산업 발전법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 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안 전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 자치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 가능

■ 도소매업

- 패션,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1) 산업의 특성

패션산업은 감각과 시대의 가치를 창조하는 이미지 산업으로서 단순한 제조업과는 달리 소비자의 감성과 욕구를 디자인에 반영, 이를 상품화 하여 다양한 이미지 및 고감도의 마케팅 전략으로 완성되는 복합산업입니다. 인간의 기본 생활욕구인 의식주 중 '의' 부문을 충족시키는 필수산업이며, 소득이 높아지면서 패션은 의복의 개념에서 자기표현, 생활문화의 개념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패션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하는 일종의 문화상품으로 변화하면서 패션산업은 삶의 내용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는 생활문화 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이 지닌 가치에 부가하여 상품외적인 가치, 즉 심리적 가치를 창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패션제품은 단순한 공산품으로써 물성적 가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유행이나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 소재, 미적 감각, 표현법에 따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브랜드 이미지나 스타일 등에 의한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과거 기존의 봉제중심의 산업에서 고도의 제품생산기술, 전문 디자이너 등의 패션 고급인력, 대형 및 전문화된 유통망의 확충 등 전반적인 산업 기반의 향상과 소비자의 고감도 패션에 대한 욕구, 10대~30대 초반이 여성의류의 소비주체로 부상, 브랜드 컨셉 및 인지도에 따른 패션마니아 증가 등 산업전반에 걸친 변화로 패션산업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국내 패션 시장은 경기변동에 대해 높은 민감도를 보입니다. 또한 Life Style 변화, 합리적인 소비 문화추구 및 시장의 양극화 등의 요인으로 패션시장은 보다 세분화 되고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패션사업분야를 창출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진출 가속화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경쟁과 성장이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패션사업은 내수 위주의 산업구조로 국내 경기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타 산업 대비 높은 편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소비자 심리지수 및 의류비 지출전망 추이에 따르면, 개인들의 의류에 대한 예상 소비 지출은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소비자 심리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들의 소비지출은 가처분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패션 및 의류산업은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류 복종별로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사복이 경기변동 민감도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반면 명품의류시장의 소비층은 제한적이며, 주 소비층인 고소득층의 소비는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보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등 당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명품의류, 여성복, 캐주얼은 상대적으로 경기변동 영향이 낮고 적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패션사업의 계절성을 보자면 일반적으로 겨울제품의 단가가 타 계절제품의 단가보다 높기 때문에 S/S(봄, 여름) 보다는 F/W (가을/겨울) 의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며, 그중에서도 3/4분기 보다는 4/4분기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큰 경향이 있습니다.

4) 경쟁요소

해외 브랜드 시장에서는 유망한 해외브랜드의 보유 및 발굴, 유통망의 선점 및 확장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명품시장은 주로 대기업간의 명품브랜드유치 및 유통망 확장을 위한 경쟁이 주를 이룹니다. 여성복은 남성복이나 유아동복, 스포츠웨어 등 다른 복종보다 경쟁업체가 많아 경쟁이 심하며, 짧은 패션주기의 특성 때문에 쉽게 모방될 수 없는 브랜드 이미지나 제품 스타일을 바탕으로 차별화 요소가 형성됩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성유, 직물,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은 지적재산에 관련된 법률(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으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세부고시 및 지침이 있습니다.

■ 면세업

면세점사업

1) 산업의 특성

면세점은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상품에 부과되는 제세금이 유보된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국가(세관)로부터 설치 및 운영 특허를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장 이외에 보세창고 및 물류시설, IT 시스템 등 별도 인프라가 필요하여 초기 자본부담이 크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면세산업은 유통산업과 관광산업, 특허산업이 결합된 형태의 산업 구조로서, 외국인관광객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행시장 동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상품구매가 가능한 고객은 출국 예정이 있는 내외국

인으로 제한되며, 방한중인 외국인의 외화수입을 통한 관광산업 진흥과 해외여행 예정인 내국인의 외화 유출 억제에 사업의 주목적이 됩니다.

면세산업은 국제정세 및 주변국과의 관계 등 대외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면세산업을 포함한 관광산업 전반에 큰 위기상황을 초래했던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제 관광 수요의 회복과 더불어 면세산업은 조금씩 회복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행은 면세점의 주요 고객인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를 증가시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세업계는 변화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와 체험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면세 쇼핑과 접목시키는 등 쇼핑 경험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면세업계는 기존의 주요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 이외에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을 유치함으로써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세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리스크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일본인 관광객 중심으로 성장하던 국내면세산업은 2010년대 들어 중국인 관광객의 본격적인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높은 성장세를 보여 왔습니다. 한때 중국의 한국 여행상품 판매금지 조치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급감하였으나, 내국인 아웃바운드의 지속적인 증가와 동남아시아 등의 고객 다변화로 성장을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한 국내 면세품에 대한 견고한 수요를 바탕으로 구조적으로 증가한 인당 매출액 상승이 전체 면세산업의 성장을 이끌었고, 중국의 규제 완화 분위기가 더해져 2019년 매출은 사상 최고치인 약 3조 1천억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발병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선언되었으며, 이는 면세점업을 포함한 국내외 다양한 사업의 성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면세업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채널 확대, MD의 차별화 등의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2022년 6월부터 해외입국자 격리조치 해제에 따라 공항 면세점을 중심으로 면세업계의 실적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면세업계는 중·장기적으로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로 중국 내수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업계는 변화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와 체험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면세 쇼핑과 접목시키는 등 쇼핑 경험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면세업계는 기존의 주요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을 유치함으로써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세업계의 안정적인 성장과 리스크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유통업의 특성상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으나, 면세업은 외국인 매출 비중이 높아 국내 경기 민감도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기의 흐름과 환율 변동에 따라 여행 수요가 변화하는 만큼 국제 경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면세업은 계절적 영향보다는 국내 및 중국, 일본 등 인접국의 해외여행 시즌 특수성에 대한 영향도가 큰 편입니다. 내국인의 경우 휴가철 및 설/추석 등이며, 중국의 춘절/노동절/국경절, 일본의 골든위크/오봉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경쟁요소

환율 변동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변화하는 면세점은, 백화점과 같은 타 유통채널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및 모바일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경쟁은 더욱 심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 면세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중국의 시장 변화와 인접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정책도 주요 경쟁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면세산업은 국가 특허산업으로,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관세청 및 관할 세관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관련 법령은 관세법이며, 하위 법령으로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을, 행정규칙으로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두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 백화점사업

백화점은 2025년 매출 2조 26억원을 기록하며,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고, 영업이익 2,387억원을 달성하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 실적을 이어 갔습니다. 특히, 강남점은 3년 연속 매출 3조원을 달성하며 국내 백화점을 대표하는 점포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 침체,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과의 경쟁 심화는 신세계가 직면할 주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물가 상승은 고객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 유통업체 간 치열한 경쟁과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신세계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고객 중심이라는 본질에 집중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혁신적인 콘텐츠 생산, 신사업 성장 동력 발굴, 수익성 강화 등 신세계만의 과감한 전략실행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 도소매업

- 패션,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회사는 패션 및 코스메틱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꾸준한 사업 확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1996년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업계 최고의 해외 브랜드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패션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자체 패션 브랜드 델라라나, 일라일 등은 국내 주요 백화점 대표 브랜드로서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 받고 있습니다.

2012년 선도적으로 뛰어든 코스메틱 사업은 자체 브랜드에서 수입 브랜드까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니치향수 분야에서 Diptyque, Hermes Perfume 등을 성장시키며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했습니다. 2020년 국내 기업 최초로 인수한 글로벌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스위스퍼펙션'과 2021년 런칭한 프랑스 디자이너 브랜드로서의 헤리티지를 지닌 자체 화장품 '뽀아레'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랑 받는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확대 및 국내외 코스메틱 사업 확장을 위해 2024년 '어뮤즈'를 인수하였습니다.

국내 소비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삶의 질적 향상 욕구 증대, 소비의 고급화/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성향은 더욱 다양화/세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품과 같이 심리적 만족도가 높은 소비재는 과감히 소비하고, 생필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 패턴이 일반화 되면서 럭셔리 및 프리미엄 상품과 가성비가 뛰어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패션, 화장품 시장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패션, 화장품 시장은 종류와 유통채널에 따라 시장 세분화가 심한 편이며 각각의 브랜드마다 경쟁업체가 상이하여 객관적인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가 어려우나 당사의 브랜드는 각 분야에서 높은 선호도를 차지해왔습니다.

당사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외 패션 및 코스메틱 브랜드의 신규 도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어뮤즈 인수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당사의 비약적인 성장은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과감한 시도의 결과였던 만큼 2026년에도 패션 및 코스메틱 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과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채널 '신세계V'를 국내 최고의 럭셔리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콘텐츠 확보와 라이브 방송, 온라인 제휴 등을 통해 신규 회원을 공격적으로 유입시키고 매출 볼륨을 확대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 면세업

신세계면세점은 신세계그룹의 관광, 서비스 전문 계열사인 (주)신세계조선포털을 통해 2012년 부산의 (주)파라다이스면세점을 인수합병하면서 면세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부산 시내면세점을 시작으로 2014년 김해국제공항, 2015년 인천국제공항에 사업권을 획득하면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고 출국장면세점 운영경험을 쌓았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신세계조선포털의 면세사업부를 통해 운영되던 신세계면세점을 더욱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2015년 면세 전문 독립법인인 (주)신세계디에프를 설립하였습니다. (주)신세계디에프는 면세사업이 가진 유통업과 관광업의 복합적인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여 2015년 서울시내 면세사업권을 획득하였고, 2016년 본점(명동점)을 성공적으로 개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사업권(2018년 1월 개정)을 획득하며, 공항면세점까지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25년 현재는 인천국제공항 DF2, DF4구역에서 면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재화와 용역의 성격, 시장 및 판매방법의 특징, 사업의 계속성 등을 고려한 영업부문별 경영성과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백화점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자동차 여객 터미널업, 호텔업, 면세업, 미디어콘텐츠사업 등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사업부문	매출유형	회사명
백화점업	백화점판매	(주)신세계 (주)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대전신세계 (주)광주신세계
도소매업	패션, 화장품 제조 등	(주)신세계인터내셔널 (주)신세계통보이 외
	가구소매	(주)신세계까사 외
	기타통신판매	(주)신세계라이브쇼핑
부동산 및 자동차여객터미널업	부동산 임대, 공급, 개발, 여객터미널 운영 등	(주)신세계센트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외
호텔업	관광호텔 및 리조트	(주)신세계센트럴(호텔)
면세업	면세점	(주)신세계디에프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 외

(2) 시장점유율

■ 백화점사업

국내 백화점시장은 상위 3개사(신세계, 롯데, 현대)가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3사의 주업종인 백화점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아울렛 제외)

상위 3사 기준	2025년	2024년	2023년
신세계 시장점유율	36%	36%	35%

- 자료출처 : 각사 IR, 공시, 애널리스트 자료 등을 바탕으로 당사가 추정
- 당사자료는 총판매액(임대매장 판매액 포함) 기준
- (주)신세계가 운영하는 백화점 외에 계열회사인 (주)광주신세계가 운영하는 신세계광주점, (주)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운영하는 신세계대구점, (주)대전신세계가 운영하는 신세계 Art & Science점, 위탁운영 중인 신세계 천안아산점 등을 포함하여 시장점유율을 산정함.

■ 도소매업

국내 패션, 화장품시장은 종류와 유통채널에 따라 시장 조각화가 심한 편이며 각각의 브랜드마다 경쟁업체가 상이하여 객관적인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 백화점사업

당사는 '랜드마크 백화점'으로서 전국의 주요상권을 목표로 삼아 총 13개 점포(위탁경영중인 신세계천안아산점, (주)광주신세계가 운영하는 신세계광주점, (주)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운영하는 신세계대구점, (주)대전신세계가 운영하는 대전신세계 Art & Science점 포함)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품격 이미지의 백화점으로서 입지를 강화하여 전 점포 지역 1번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 고소득 계층과 소비성향이 높은 20~30대 고객들을 겨냥한 백화점 본연의 상품 경쟁력 강화로 구매력 높은 우량고객의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도소매업

- 패션,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국내 소비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면 삶의 질적 향상 욕구 증대, 글로벌화, 소비의 고급화, 양극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으며, 모바일, 플랫폼 등 채널 다변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성향은 더욱 다양화, 세분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치를 부여하거나 만족도가 높은 소비재는 과감히 소비하고, 가치가 없거나 낮은 소비재에는 철저하게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 패턴인 가치소비가 활성화 되면서, 고가이지만 가심비가 높은 프리미엄 상품, 가성비가 뛰어난 저가 상품이 함께 각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치소비 트렌드에 따라 패션, 화장품 시장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고품질에 프레스티지하고 럭셔리한 고가 브랜드를 전개하는 동시에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실용성이 뛰어난 가성비 우위의 브랜드를 전개함으로써 유니크하고 차별화된 상품 수입과 제품의 공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면세업

면세업은 유통업과 관광업, 특허사업이 결합된 형태의 사업 구조로 일반 유통업과는 달리 시장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내 면세시장은 오랜기간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없었으며 상위 2개사의 독과점 형태로 고착화된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외국인 해외여행 및 명품 수요 증가로 관광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면세점 매출이 증가하며 급격한 시장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회사도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여, 시장 진입 이후 국내 최고 유통 그룹의 노하우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규제와 관광시장, 국제정세 등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유통 대기업의 일원으로 그룹의 역량을 다해 차별화된 면세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백화점

당사의 주요 투자는 신규점 오픈, 복합시설개발 및 기존점 리뉴얼 등입니다. 투자재원은 내부유보자금 및 다양한 조달방법을 통해 충당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유통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브랜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브랜드 비즈니스 확장을 추진하여 지속성장의 기반을 닦아나갈 것입니다.

특히, 21년 8월 오픈한 대전신세계 Art & Science는 상권 최대의 럭셔리 라인업, 과학 및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 제공으로 압도적 상권1번점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이외에도 본점 럭셔리 전문관 개발 등 신규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 도소매업

국내 최대 규모의 유통 그룹인 신세계 그룹내에서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를 국내에 직수입하여 우량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여성복 등 캐주얼 브랜드를 기획, 생산, 유통하는 패션부문과 해외 럭셔리 및 자체 제작 코스메틱 브랜드를 기획, 생산, 유통하는 코스메틱부문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문체제의 정착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당사의 장점인 안정적인 유통망과 기존 사업에서의 축적된 경험치를 활용하여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포맷을 가진 회사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 면세업

당사는 미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확장 및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고객 니즈에 대응하여 마케팅 역량을 집중시켜 매출 성장기반을 다지며, 국내외 유명브랜드 및 신세계면세점만의 고유브랜드를 확충해나가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5)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6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나. 재무제표 주석의 '1. 회사의 개요' 참고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자본변동표 ·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 연결손익계산서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연결자본변동표 · 연결현금흐름표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제 69(당)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완료 전 재무제표입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16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 ·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69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68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신세계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69기말	제68기말
자 산			
Ⅰ. 유 동 자 산			2,766,743,223,009
현금및현금성자산	40,41,43	845,128,179,533	582,471,444,56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41,42	585,993,533,555	596,641,217,71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41	3,188,808,721	677,568,774
재고자산	10	928,853,402,632	979,080,996,460
파생상품자산	19,40,41	-	44,098,325,049
당기법인세자산	37	7,216,297,410	-
기타금융자산	5,9,41,42	320,422,120,668	48,524,765,056
기타유동자산	17	75,940,880,490	91,168,493,745
Ⅱ. 비 유 동 자 산			13,073,266,462,64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41,42	-	479,774,26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7,41	202,556,535,299	188,517,924,29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8,41	763,801,767,660	476,582,576,380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12	945,707,119,799	930,263,825,014
유형자산	13,46	7,794,754,547,419	7,795,443,760,563
투자부동산	14,46	908,293,606,263	923,552,934,153
사용권자산	15,42,46	1,182,402,137,080	1,134,791,249,644
무형자산	16	642,195,293,300	574,055,906,834
파생상품자산	19,40,41	3,470,096,712	3,142,570,421
기타금융자산	5,9,41,42	535,895,112,141	640,568,664,840
기타비유동자산	17	16,041,359,182	14,896,848,534
이연법인세자산	37	16,881,010,030	10,254,667,996
순확정급여자산	24	61,267,877,755	36,560,607,650
자 산 총 계			15,840,009,685,649
부 채			
Ⅰ. 유 동 부 채			5,183,192,773,83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8,40,41,42	1,695,841,001,203	1,523,208,551,124
상품권	31	769,773,655,433	738,733,586,187
단기차입금	20,40,41	2,154,639,015,848	2,146,975,350,687
파생상품부채	19,40,41	425,500,000	8,500,000
당기법인세부채	37	36,651,219,995	37,732,414,438
충당부채	25	13,074,006,160	25,037,589,098
기타금융부채	22,40,41,42	202,720,715,582	191,262,829,727
리스부채	23,40,41,42	80,287,438,945	79,813,507,465
기타유동부채	21,26,42	229,780,220,668	204,595,102,406
Ⅱ. 비 유 동 부 채			4,084,451,020,000
장기차입금	20,40,41	2,404,267,280,398	2,213,089,222,761
파생상품부채	19,40,41	66,220,761,766	37,130,000,000
순확정급여부채	24	-	1,892,695,953
이연법인세부채	37	757,995,241,738	673,051,250,039

총당부채	25	12,172,213,495		13,848,320,585	
기타금융부채		22,40,41,42	107,761,504,987		123,292,209,597
리스부채		23,40,41,42	695,704,574,608		654,470,663,928
기타비유동부채	21		40,329,443,008		32,933,883,731
부 채 총 계			9,267,643,793,834		8,697,075,677,726
자 본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4,455,332,903,779		4,265,138,301,271
자본금	27		49,225,905,000		49,225,905,000
기타불입자본	28		266,680,477,979		231,323,871,795
이익잉여금	29		3,657,624,531,996		3,717,641,497,276
기타자본구성요소	30		481,801,988,804		266,947,027,200
Ⅱ. 비지배지분	11		2,117,032,988,036		2,109,560,142,954
자 본 총 계			6,572,365,891,815		6,374,698,444,225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5,840,009,685,649		15,071,774,121,951

- 연결 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 69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68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식	제 69기	제 68기
I. 매출액	4,31,42	6,929,498,818,333	6,570,412,728,809
II. 매출원가	38,42	2,736,370,209,706	2,517,696,762,977
III. 매출총이익		4,193,128,608,627	4,052,715,965,832
판매비와 관리비	32,38,42	3,713,166,846,489	3,575,691,659,046
IV. 영업이익		479,961,762,138	477,024,306,786
금융이익	33,42	95,974,517,949	143,443,427,413
금융원가	34	266,167,333,881	300,901,336,089
지분법손익	12	(12,276,137,699)	(12,336,238,187)
기타영업외수익	35	17,626,362,076	16,214,254,577
기타영업외비용	36	182,946,270,485	128,844,534,177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2,172,900,098	194,599,880,323
법인세비용	37	67,569,398,744	7,991,016,359
VI. 당기순이익		64,603,501,354	186,608,863,964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13,937,046,414	107,782,477,017
비지배지분	11	50,666,454,940	78,826,386,947
VII. 지배기업 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	39		
기본주당순이익		1,590	11,776
희석주당순이익		1,590	11,776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9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68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 69기	제 68기
Ⅰ. 당기순이익		64,603,501,354	186,608,863,964
Ⅱ. 기타포괄손익		218,217,534,704	68,888,868,92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15,964,827,671	67,601,716,81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30	287,219,191,280	101,201,779,395
지분법자본변동	30	641,860,242	(716,532,12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4	1,908,710,774	(12,138,706,38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30, 37	(73,804,934,625)	(20,744,824,08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2,252,707,033	1,287,152,114
지분법자본변동	30	213,157,072	(635,934,330)
해외사업환산손익	30	2,341,064,686	1,862,197,85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30, 37	(301,514,725)	60,888,594
Ⅲ. 당기총포괄이익		282,821,036,058	255,497,732,888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229,948,570,534	179,971,346,746
비지배지분	11	52,872,465,524	75,526,386,142

-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69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68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				
I. 2024.1.1(전기초)	49,225,905,000	72,430,940,799	243,165,476,730	3,655,198,026,314	188,570,126,173	2,131,398,353,474	6,339,988,828,490
1. 연차배당	-	-	-	(37,745,628,000)	-	(44,365,952,612)	(82,111,580,612)
2. 종속기업지분의 추가취득	-	-	21,184,231,996	-	-	(50,271,814,376)	(29,087,582,380)
3. 자기주식의 취득	-	-	(105,061,283,280)	-	-	-	(105,061,283,280)
4.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	(395,494,450)	-	-	4,228,109,055	3,832,614,605
5. 종속기업의 유상감자	-	-	-	-	-	(7,175,675,000)	(7,175,675,000)
6. 총포괄손익	-	-	-	101,830,865,146	78,140,481,600	75,526,386,142	255,497,732,888
당기순이익	-	-	-	107,782,477,017	-	78,826,386,947	186,608,863,96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77,824,168,355	-	77,824,168,355
지분법자본변동	-	-	-	(632,680,121)	(442,630,506)	(179,844,829)	(1,255,155,456)
해외사업장환산차이	-	-	-	-	758,943,751	1,103,254,099	1,862,197,85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5,318,931,750)	-	(4,223,410,075)	(9,542,341,825)
7. 기타조정	-	-	-	(1,641,766,184)	236,419,427	220,736,271	(1,184,610,486)
II. 2024.12.31(전기말)	49,225,905,000	72,430,940,799	158,892,930,996	3,717,641,497,276	266,947,027,200	2,109,560,142,954	6,374,698,444,225
III. 2025.1.1(당기초)	49,225,905,000	72,430,940,799	158,892,930,996	3,717,641,497,276	266,947,027,200	2,109,560,142,954	6,374,698,444,225
1. 연차배당	-	-	-	(39,454,564,500)	-	(46,636,068,779)	(86,090,633,279)
2. 종속기업지분의 신규설립	-	-	18,237,516	-	-	481,762,484	500,000,000
3. 총포괄손익	-	-	-	15,093,608,930	214,854,961,604	52,872,465,524	282,821,036,058
당기순이익	-	-	-	13,937,046,414	-	50,666,454,940	64,603,501,35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213,931,301,918	-	213,931,301,918
지분법자본변동	-	-	-	566,090,486	(102,306,490)	60,287,921	524,071,917
해외사업장환산차이	-	-	-	-	1,025,966,176	1,315,098,510	2,341,064,68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590,472,030	-	830,624,153	1,421,096,183
4. 자기주식의 소각	-	-	35,364,272,244	(35,364,272,244)	-	-	-
5. 기타조정	-	-	(25,903,576)	(291,737,466)	-	754,685,853	437,044,811
IV. 2025.12.31(당기말)	49,225,905,000	72,430,940,799	194,249,537,180	3,657,624,531,996	481,801,988,804	2,117,032,988,036	6,572,365,891,815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릐 표

제 69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68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69기	제68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93,469,957,37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43	1,187,597,166,456	1,000,293,724,699
이자수익의 수취		14,024,713,951	25,956,506,440
배당금의 수취		41,822,343,580	32,706,475,045
이자비용의 지급		(188,469,563,905)	(190,982,672,856)
법인세의 납부		(61,504,702,711)	(92,136,417,609)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45,982,078,556)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293,854,416,767)	(245,743,686,929)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209,631,821,527	371,686,151,759
보증금의 증가		(24,613,360,942)	(17,223,889,048)
보증금의 감소		23,701,386,837	24,029,986,195
유형자산의 취득		(490,853,299,694)	(895,393,492,723)
유형자산의 처분		4,009,759,749	10,497,589,109
무형자산의 취득		(9,946,823,745)	(13,347,960,043)
무형자산의 처분		3,120,280,000	-
투자부동산의 취득		(969,661,340)	(133,374,271,586)
투자부동산의 처분		-	11,811,227,886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		(48,089,465,170)	(24,655,736,320)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처분		-	871,125,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44,757,029,072)	(62,441,005,66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125,396,870,061	55,739,572,681
파생상품의 정산		1,241,860,000	(10,260,000)
사업양수 등으로 인한 순현금유출		-	(63,824,819,475)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4,355,935,880)
단기차입금의 차입		5,858,233,388,276	7,300,613,973,354
단기차입금의 상환		(5,936,056,218,341)	(7,428,151,935,894)
장기차입금의 차입		145,628,000,000	204,300,00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362,300,000,000)	(2,000,000,000)
사채의 발행		1,115,569,446,837	1,132,417,451,882
사채의 상환		(620,420,000,000)	(958,972,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238,624,662,763)	(45,130,871,929)
배당금의 지급		(86,090,671,279)	(82,110,989,972)
예수보증금의 증가		15,307,444,303	18,043,826,716
예수보증금의 감소		(21,716,427,486)	(24,275,371,895)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등		500,000,000	3,832,614,605
종속기업의 유상감자		-	(7,175,675,000)
자기주식의 취득		-	(105,061,283,280)
종속기업 자기주식의 취득		(145,997,600)	(29,087,582,380)
파생상품의 정산으로 인한 현금유입		270,621,477,241	-
파생상품의 정산으로 인한 현금유출		(227,361,715,068)	-
비지배지분부채의 증가		2,500,000,000	7,750,000,000
비지배지분부채의 감소		-	(1,849,880,0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I+II+III)			263,131,942,935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43		582,471,444,560
			802,458,635,593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475,207,962)		2,412,386,197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43		845,128,179,533		582,471,444,560

주석

제 69기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68기 : 2024년 1월 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신세계와 그 종속기업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이하 "당사")는 1955년 12월 9일 주식회사 동화백화점으로 설립되어, 상호를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에 이어, 2001년 3월 16일에 주식회사 신세계로 변경하였으며, 당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6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로 백화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백화점 9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1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형마트 부문을 인적분할하였으며, 2018년 12월 27일을 기준으로 하여 온라인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였습니다.

당사는 1985년 8월 19일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대주주인 정유경 회장 외 2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29.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

보험계약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의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과 다른 경우, 그 차이내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공시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 (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가 도입한 새로운 표시 요구사항은 특히 영업손익의 정의와 관련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 요구사항은 투명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기준서의 소급작성 요구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연결실체는 제1118호를 아직 채택하지 않았으며, 기준서 적용이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중입니다. 연결실체는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3월 31일 종료되는 기간의 제1118호에 따른 첫 중간재무제표 및 2027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 보고를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현재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준서의 채택이 연결실체의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손익계산서의 수익

과 비용을 새로운 범주로 분류하게 되어 영업손익의 계산 및 보고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실체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실체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실체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보다 클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실체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실체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 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실체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실체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실체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실체가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3)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 등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이익 또는 금융원가로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4) 금융자산

1) 분류

연결실체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이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이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이익' 또는 '금융원가'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이익' 또는 '금융원가'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이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이익' 또는 '금융원가'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실체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실체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주석 6 참조).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 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은 매매목적으로 분류되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금융이익(원가)'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6)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주석 6 참조).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개별법(미착품), 이동평균법(원재료, 저장품, 제품, 상품 및 재공품) 및 소매재고법(매장상품)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8)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물	10 ~ 60년
건축물	5 ~ 40년
인테리어	5 ~ 10년
기계장치	4 ~ 30년
차량운반구	4 ~ 5년
공구기구비품	5 ~ 10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되며,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12) 무형자산

영업권은 주석 2. (2) 1)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계약적 고객 관계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은 5~10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13)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사용권 자산을 포함)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10~6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14)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자산 및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15)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는 연결실체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인식 후에 통상 한달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16)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실체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 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서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서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효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가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기간말 이전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부채의 유동 비유동 분류에 고려합니다. 보고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기말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7) 금융보증계약

연결실체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을 참조하거나, 금융보증이 제공된 차입금과 제공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비교하거나, 향후 금융보증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18)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복구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9)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실체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연결실체는 당사를 연결모법인으로 하고 당사가 직간접적으로 9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내국법인(이하 '연결자법인')을 연결집단으로 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결모법인으로서 연결법인세의 신고납부의 주체가 되어 연결집단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각 연결자법인의 납부대상 법인세 및 결손금을 정산합니다.

(20)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실체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실체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 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연결실체 내 일부 기업들은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 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1) 수익인식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수행의무에 거래가격 배분 → ⑤ 수행의무 충족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재화 및 용역의 제공

연결실체는 백화점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자동차여객터미널업, 면세점업, 호텔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계약을 통한 상품판매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으며, 변동대가에 대해서는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1115호에 따라 본인을 대신해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정 매장의 상품매출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상품의 인도시점에 판매대가에서 특정매입원가를 차감한 순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상품을 구매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에 대하여 환불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판매시점에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댓값 방법으로 반품을 예측합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 이러한 가정과 예상되는 반품금액이 타당한지 재평가합니다.

2) 경영자문 등 용역의 제공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경영자문 및 위탁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경영자문, 구매대행, 신세계 상호 및 BI사용 등과 같은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연결실체는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3) 고객충성제도

연결실체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고객에서 매출거래의 일부로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고객은 부여 받은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점수는 고객이 해당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할인 혜택(즉 중요한 권리)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약속은 별도의 수행의무입니다.

거래가격은 재화나 용역 및 보상점수의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보상점수당 개별판매가격은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에 따라 고객이 보상점수를 사용할 때 제공되는 할인과 사용가능성에 기초하여 추정합니다. 최초 판매거래 시점에 보상점수와 관련된 수익은 계약부채로 인식합니다. 보상점수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고객이 보상점수를 사용할 때 인식합니다.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점수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고객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에 비례하여 인식합니다.

(22) 리스

1) 리스제공자

연결실체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연결실체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연결실체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 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이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연결실체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 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이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2) 리스이용자

연결실체는 다양한 매장, 사택, 차량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2~50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

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리스를 체결하는 기업의 위험속성이 연결실체의 위험속성과 다르고 해당 리스가 연결실체의 보증에 따른 효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 특유의 조정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실체(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연결실체(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연결실체(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실체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연결실체는 유형자산으로 표시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권자산인 건물에 대해서도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등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전산장비와 소액의 사무실 비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실체 전체에 걸쳐 다수의 매장 및 사택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연결실체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스기간의 결정과 관련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정보는 주석 3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3)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이사회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4 참조). 이사회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실체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4) 재무제표 승인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2026년 2월 9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영업권의 손상

영업권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 16 참조)

(2)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24 참조).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41 참조).

(4) 법인세

연결실체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주석 37 참조).

연결실체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 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실체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5)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매장 리스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연결실체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결실체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위 이외의 경우 연결실체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매장과 사택, 차량 리스 등에서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연결실체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결실체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리스의 매수선택권의 행사가능성에 대해 평가할 때에 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이용중인 리스의 매수선택권에 대해 행사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비금융자산의 손상차손

비금융자산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 15, 16 참조)

-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69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68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신세계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69기말	제68기말
자 산			
Ⅰ. 유 동 자 산			819,874,862,009
현금및현금성자산	40, 41, 43	323,030,454,903	143,608,965,55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41,42	345,676,621,859	341,751,497,36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41	2,650,000,000	-
재고자산	10	125,781,087,617	122,980,205,171
당기법인세자산	37	7,194,674,701	-
금융리스채권	11,41	353,953,416	353,953,416
파생상품자산	19,40,41	-	37,647,198,928
기타금융자산	9,41	6,096,753,760	12,714,284,531
기타유동자산	17	9,091,315,753	5,392,556,476
Ⅱ. 비 유 동 자 산			8,558,714,136,654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6,41, 42	25,317,098	170,387,49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7,41,44	13,473,127,400	13,471,468,6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8,40,41,44	763,801,767,660	476,582,576,380
종속기업,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5,12,42,44	4,074,334,553,585	4,140,895,088,415
유형자산	13,42,45	2,437,690,819,758	2,402,214,429,876
투자부동산	14,45	261,054,792,652	271,686,679,431
사용권자산	15,42,45	680,435,339,692	623,351,571,775
무형자산	16,47	99,363,557,986	21,874,538,492
금융리스채권	11,41	141,609,835	468,018,017
순확정급여자산	24	27,714,163,833	22,648,551,573
기타금융자산	5,9,41,42	196,767,175,376	193,130,730,184
기타비유동자산	17	3,911,911,779	4,240,955,831
자 산 총 계			9,378,588,998,663
부 채			
Ⅰ. 유 동 부 채			2,869,361,911,51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8,40,41,42	1,048,509,663,069	951,949,068,956
상품권	31	769,773,655,433	738,733,586,187
단기차입금	20,40,41	863,784,841,038	964,417,906,702
당기법인세부채	37	-	3,763,091,938
총당부채	25,31	727,000,000	1,009,840,000
리스부채	23,40,41,42	38,402,360,991	30,574,469,629
기타금융부채	22,40,41,42	47,666,249,643	43,614,721,916
기타유동부채	21,26,42	100,498,141,342	93,567,529,235
Ⅱ. 비 유 동 부 채			2,207,412,284,506
장기차입금	20,40,41	1,423,140,808,957	1,287,978,335,504
이연법인세부채	37	272,202,322,931	203,117,833,229
총당부채	25	334,130,000	27,400,000
리스부채	23,40,41,42	400,392,961,319	354,421,720,983
파생상품부채	12,19,40,41,44	66,220,761,766	37,130,000,000

기타금융부채	22,40,41,42,44	17,323,408,988		31,242,288,351	
기타비유동부채	21,26,42	27,797,890,545		26,169,742,657	
부 채 총 계			5,076,774,196,022		4,767,717,535,287
자 본					
자본금	27	49,225,905,000		49,225,905,000	
기타불입자본	28	162,546,433,233		127,182,160,989	
이익잉여금	29	3,611,795,720,555		3,626,742,614,301	
기타자본구성요소	30	478,246,743,853		264,315,441,935	
자 본 총 계			4,301,814,802,641		4,067,466,122,225
부 채 와 자 본 총 계			9,378,588,998,663		8,835,183,657,512

-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제 69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68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69기	제68기
I. 매출액	4,31,42	2,002,552,906,597	1,989,928,240,821
II. 매출원가	38	317,913,375,201	335,884,686,172
III. 매출총이익		1,684,639,531,396	1,654,043,554,649
판매비와 관리비	32,38,42	1,445,879,778,575	1,410,672,849,033
IV. 영업이익		238,759,752,821	243,370,705,616
금융이익	33,41,42	106,662,456,157	118,084,211,649
금융원가	34,41,42	134,779,223,407	168,438,871,788
기타영업외수익	35	2,162,090,570	10,501,917,646
기타영업외비용	36	113,112,471,956	77,957,976,554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9,692,604,185	125,559,986,569
법인세비용	37	40,167,426,195	33,283,515,190
VI. 당기순이익		59,525,177,990	92,276,471,379
VII. 주당이익	39		
기본주당순이익		6,789	10,082
희석주당순이익		6,789	10,082

-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69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68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69기	제68기
Ⅰ. 당기순이익		59,525,177,990	92,276,471,379
Ⅱ. 기타포괄손익		214,278,066,926	80,175,449,19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14,278,066,926	80,175,449,19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4,29	456,870,893	3,057,582,36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30	287,219,191,280	101,201,779,393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29,30,37	(73,397,995,247)	(24,083,912,565)
Ⅲ. 당기총포괄손익		273,803,244,916	172,451,920,575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69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68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

(단위: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총 계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			
I. 2024.1.1.(전기초)	49,225,905,000	72,430,940,799	159,812,503,470	3,569,860,490,081	186,491,273,580	4,037,821,112,930
1. 연차배당	-	-	-	(37,745,628,000)	-	(37,745,628,000)
2. 총포괄손익	-	-	-	94,627,752,220	77,824,168,355	172,451,920,575
당기순이익	-	-	-	92,276,471,379	-	92,276,471,37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77,824,168,355	77,824,168,35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2,351,280,841	-	2,351,280,841
3. 자기주식의 취득	-	-	(105,061,283,280)	-	-	(105,061,283,280)
II. 2024.12.31(전기말)	49,225,905,000	72,430,940,799	54,751,220,190	3,626,742,614,301	264,315,441,935	4,067,466,122,225
III. 2025.1.1(당기초)	49,225,905,000	72,430,940,799	54,751,220,190	3,626,742,614,301	264,315,441,935	4,067,466,122,225
1. 연차배당	-	-	-	(39,454,564,500)	-	(39,454,564,500)
2. 총포괄손익	-	-	-	59,871,942,998	213,931,301,918	273,803,244,916
당기순이익	-	-	-	59,525,177,990	-	59,525,177,99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213,931,301,918	213,931,301,91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346,765,008	-	346,765,008
3. 자기주식의 소각	-	-	35,364,272,244	(35,364,272,244)	-	-
IV. 2025.12.31(당기말)	49,225,905,000	72,430,940,799	90,115,492,434	3,611,795,720,555	478,246,743,853	4,301,814,802,641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69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68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

(단위: 원)

과목	주석	제69기	제68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14,075,493,573	432,154,758,805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43	530,627,993,538	476,596,073,663
이자수익의 수취		3,115,364,535	4,326,188,397
배당금의 수취		95,799,904,119	83,268,460,155
이자비용의 지급		(103,911,820,887)	(100,792,018,269)
법인세의 납부		(11,555,947,732)	(31,243,945,141)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43,935,961,619)	(324,354,947,049)
장단기 금융상품의 증가		(2,000,000,000)	(105,000,000,000)
장단기 금융상품의 감소		-	105,002,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302,279,865,325)	(303,502,613,114)
유형자산의 처분		2,052,312,910	589,214,550
사용권자산의 취득		(1,849,718,723)	(939,780,000)
무형자산의 취득		(36,317,051)	(3,459,352,277)
보증금의 증가		(9,761,473,260)	(5,333,496,500)
보증금의 감소		10,208,525,000	9,228,315,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2,650,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2,229,136,612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	(25,300,000,000)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3,500,000,000)	(2,000,000,000)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35,039,465,170)	(20,055,736,320)
금융리스채권의 감소		365,040,000	365,040,000
종속기업의 유상감자 등		-	23,722,325,000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	(100,000,000)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555,000,000	200,000,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281,957,392	(62,633,305,407)
리스부채의 상환		(14,919,209,553)	(13,169,187,659)
배당금의 지급		(39,454,564,500)	(37,745,628,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3,476,950,000,000	3,932,25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3,486,950,000,000)	(4,018,250,00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180,000,000,000)	-
사채의 상환		(481,910,000,000)	(380,000,000,000)
사채의 발행		706,750,000,000	550,000,000,000
통화스왑정산의 현금유입		224,992,377,241	-
통화스왑정산의 현금유출		(185,207,515,068)	-
예수보증금의 증가		1,836,758,030	10,910,867,352
예수보증금의 감소		(12,805,888,758)	(1,568,073,820)
자기주식의 취득		-	(105,061,283,28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I+II+III)		179,421,489,346	45,166,506,349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43	143,608,965,557	98,442,459,208
V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43	323,030,454,903	143,608,965,557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제 69 기	2025년 1월 1일 부터	제 68기	2024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2024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6년 3월 24일	처분확정일	2025년 3월 20일

(단위: 원)				
과 목	제69(당) 기		제68(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24,507,670,754		94,627,752,220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46,765,008		2,351,280,841	
3. 자기주식 소각	(35,364,272,244)			
4. 당기순이익	59,525,177,990		92,276,471,379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22,000,000,000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45,591,941,200		94,627,752,220
1. 사업확장적립금	-		55,173,187,720	
2. 배당금	45,591,941,200		39,454,564,500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 당기: 5,200원(104%) 전기: 4,500원(90%)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915,729,554		-

-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주석

제 69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68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신세계(이하 "당사")는 1955년 12월 9일 주식회사 동화백화점으로 설립되어, 상호를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에 이어, 2001년 3월 16일 주식회사 신세계로 변경하였으며, 당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6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로 백화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백화점 9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1년 5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대형마트 부문을 인적분할하였으며, 2018년 12월 27일을 기준일로 하여 온라인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였습니다.

당사는 1985년 8월 19일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대주주인 정유경 회장 외 2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29.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

보험계약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의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과 다른 경우, 그 차이내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공시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 (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 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

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가 도입한 새로운 표시 요구사항은 특히 영업손익의 정의와 관련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 요구사항은 투명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기준서의 소급작성 요구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당사는 제1118호를 아직 채택하지 않았으며, 기준서 적용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중입니다. 당사는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3월 31일 종료되는 기간의 제1118호에 따른 첫 중간재무제표 및 2027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 보고를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현재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준서의 채택이 당사의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새로운 범주로 분류하게 되어 영업손익의 계산 및 보고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

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 등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이익 또는 금융원가로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4)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이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이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이익' 또는 '금융원가'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이익' 또는 '금융원가'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이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이익' 또는 '금융원가'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주석 6 참조).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

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은 매매목적으로 분류되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금융이익(원가)'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6)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주석 6 참조).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상품은 소매재고법, 저장품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8)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분	내용연수
----	------

건물	30 ~ 60년
건축물	5 ~ 30년
인테리어	5 ~ 10년
기계장치	10 ~ 20년
차량운반구	5년
공구기구비품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되며,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12)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계약적 고객 관계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은 5~10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13)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사용권 자산을 포함)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30~6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14)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자산 및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15)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는 당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인식 후에 통상 한달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16)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서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서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당사가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기간말 이전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부채의 유동 비유동 분류에 고려합니다. 보

고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기말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7) 금융보증계약

당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을 참조하거나, 금융보증이 제공된 차입금과 제공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비교하거나, 향후 금융보증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관련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기타금융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18)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복구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9)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당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사는 당사를 연결모법인으로 하고 당사가 직간접적으로 9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내국 법인(이하 '연결자법인')을 연결집단으로 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결모법인으로서 연결법인세의 신고납부의 주체가 되어 연결집단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각 연결자법인의 납부대상 법인세 및 결손금을 정산합니다.

(20)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당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당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 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당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인 보험 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1) 수익인식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수행의무에 거래가격 배분 → ⑤ 수행의무 충족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재화 및 용역의 제공

당사는 백화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을 통한 상품판매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으며, 변동대가에 대해서는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1115호에 따라 본인을 대신해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정매장의 상품매출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상품의 인도시점에 판매대가에서 특정매입원가를 차감한 순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상품을 구매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에 대하여 환불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당사는 판매시점에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댓값 방법으로 반품을 예측합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 이러한 가정과 예상되는 반품금액이 타당한지 재평가합니다.

2) 경영자문 등 용역의 제공

당사는 고객에게 경영자문 및 위탁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경영자문, 구매대행, 신세계 상호 및 BI사용 등과 같은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당사는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고객충성제도

당사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고객에서 매출거래의 일부로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고객은 부여 받은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가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점수는 고객이 해당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할인 혜택(즉 중요한 권리)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약속은 별도의 수행의무입니다.

거래가격은 재화나 용역 및 보상점수의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보상점수당 개별판매가격은 당사의 과거 경험에 따라 고객이 보상점수를 사용할 때 제공되는 할인과 사용가능성에 기초하여 추정합니다. 최초 판매거래 시점에 보상점수와 관련된 수익은 계약부채로 인식합니다. 보상점수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고객이 보상점수를 사용할 때 인식합니다.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점수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고객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에 비례하여 인식합니다.

(22) 리스

1) 리스제공자

당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당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당사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당사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이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당사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 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이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2) 리스이용자

당사는 다양한 매장, 사택, 차량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2~50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이 집행 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리스를 체결하는 기업의 위험속성이 당사의 위험속성과 다르고 해당 리스가 당사의 보증에 따른 효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 특유의 조정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할,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리스료
- 잔존가치보중에 따라 당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당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
- 리스기간이 당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중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사는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당사는 유형자산으로 표시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권자산인 건물에 대해서도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등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전산장비와 소액의 사무실 비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당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매장 및 사택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당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스기간의 결정과 관련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정보는 주석 3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3)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이사회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4 참조). 이사회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당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4)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6년 2월 9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24 참조).

(2) 법인세

당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주석 37 참조).

당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당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매장 리스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당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위 이외의 경우 당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당사는 매장과 사택, 차량 리스 등에서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당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당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41 참조).

(5) 비금융자산의 손상차손

비금융자산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 12 참조).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6년 3월 16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고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1) 제2-1호 :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 2) 제2-2호 : 상법 개정에 따른 변경
- 3) 제2-3호 : 보선 관련 임기 명확화
- 4) 제2-4호 : 분기 배당 절차 개선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제2-1호)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7조 (이사의 선임) ③본 회사는 이사의 선임 목적을 하는 총회에서 <u>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소유주식 1주에</u> <u>대하여 1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으며,</u> <u>상법 제 382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제 27조 (이사의 선임) ③<삭 제>	-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부 칙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신 설>	부 칙(2026.03.24)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7조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 상법 시행시기 ('26.9.10자)를 고려 하여 별도의 부칙 으로 마련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상기 '가' 포함)

1) 제 2-1호 :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삭제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7조 (이사의 선임) ③본 회사는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에서 <u>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제 382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제 27조 (이사의 선임) ③<삭 제>	-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부 칙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신 설>	부 칙(2026.03.24)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7조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 상법 시행시기 ('26.9.10자)를 고려 하여 별도의 부칙 으로 마련

2) 제 2-2호 : 상법 개정에 따른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8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u>사외</u>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28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u>독립</u>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36조의 2 (위원회) ①본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③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 제33조, 제34조 및 제3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6조의 2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좌 동> 1. 감사위원회 2. <u>독립</u> 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 ③ <좌 동>	- 사외이사 명칭 변경
제 38 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정관 제3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3분의 2이상은 <u>사외</u> 이사이어야 하고, <u>사외</u> 이 사 아닌 위원은 관계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다만,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제 38 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② <좌 동> ③위원의 3분의 2이상은 <u>독립</u> 이사이어야 하고, <u>독립</u> 이 사 아닌 위원은 관계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좌 동>	- 사외이사 명칭 변경 -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인원 상향 (1명→ 2명)

<p>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한다.</p> <p>⑥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 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⑦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 이어야 하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p>	<p>⑥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 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⑦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 이어야 하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p>	<p>- 감사위원의 선·해임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반영</p> <p>- 사외이사 명칭 변경</p>
<p>제 38 조의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p> <p>①본 회사는 정관 제3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둔다.</p> <p>②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한다.</p> <p>③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p>	<p>제 38 조의 5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p> <p>①본 회사는 정관 제3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독립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둔다.</p> <p>②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한다.</p> <p>③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로 한다.</p>	<p>- 사외이사 명칭 변경</p>
<p>제 38 조의 6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직무)</p> <p>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다.</p>	<p>제 38 조의 6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직무)</p> <p>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 독립이사후보를 추천한다.</p>	
<p>제 19 조 (소집지)</p> <p>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 19 조 (소집지와 개최방식)</p> <p>① <좌 동></p> <p>②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p>	<p>-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p>
<p>제 23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p> <p>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주주총회 개최전에 본 회사 소정양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23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p> <p>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주주총회 개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 대리권 증명 방법을 서면 외에 전자문 서로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서면에 한정 되었던 '(위임장)' 문구를 전자문서에도 적용 됨에 따라 삭제함</p>

<p>제 40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p> <p>①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대차대조표</p> <p>2. 손익계산서</p> <p>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 서정하는 서류</p> <p>②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p> <p>③감사위원회는 <u>제1항의 서류를 받은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 40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p> <p>①~② <좌 동></p> <p>③감사위원회는 <u>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u> 감사보고서를 대표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상장회사 감사 보고서 제출기한 특례 적용</p>
<p>부 칙</p> <p><신 설></p>	<p><u>부 칙(2026.03.24)</u></p> <p>③ 제28조, 제36조의2, 제 38조의2 제3항, 제7항, 제38조의5 및 6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④ 제 38조의2 제6항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 일부터 시행한다.</p> <p>⑤ 제19조, 제23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상법 시행 시기 ('26.7.23자)를 고려하여 별도 부칙 마련</p> <p>- 상법 시행시기 ('27.1.1자)를 고려하여 별도 부칙 마련</p>

3) 제 2-3호 : 보선 관련 이사의 임기 명확화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 29 조 (이사의 보선)</p> <p>①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u>잔여임기로 한다.</u></p>	<p>제 29 조 (이사의 보선)</p> <p>① <좌 동></p> <p>② <삭 제></p>	<p>- 이사의 임기 명확화를 통한 책임 경영 및 주주총실 의무 강화</p>

4) 제 2-4호 : 분기 배당 절차 개선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 42 조2 (분기배당)</p> <p>① 본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u>말일</u>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결의는 <u>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u></p>	<p>제 42 조의2 (분기배당)</p> <p>① 본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u>말일</u>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p> <p>②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p>	<p>-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배당 기준일 변경</p>

※ 기타 참고사항

-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우정섭)

제4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최난설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우정섭	1972.05.10	-	해당없음	임원	이사회
최난설현	1975.02.18	사외이사	분리선출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2)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우정섭	신세계 지원 본부장	2025~	(現) (주)신세계 지원본부장	해당 없음
		2023~2025	(前) (주)신세계 부문 재무관리본부장	
		2021~2023	(前) (주)신세계 전략실 재무본부장	
		2017~2021	(前) (주)신세계 전략실 재무팀장	
최난설현	연세대학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2024~	(現) 한국소비자원 비상임이사	해당 없음
		2023~	(現)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자문위원	
		2022~	(現) 금융위원회 법률자문 위원	
		2015~	(現)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우정섭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최난설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최난설현 사외이사 후보자]

사외이사 후보 최난설현은 (주)신세계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이사회
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주주 및 임직원 등
회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 넓게 청취하여 항상 회사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성과 독립성

본 후보자는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 금융위원회 법률
자문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적 전문성을 쌓아 왔습니다. 경영의 최고 의사결정
주체인 이사회 의 일원으로서 금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의 경영에 적극 참여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대주주 등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주)신세계가 강조하고 있는 '윤리경영'을 최고 가치로 하여 모든 업무 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3) 윤리성

본 후보자는 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회사의 사업기회, 자산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회사와 경쟁적인 사업을 하거나 기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사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4)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주)신세계의 '고객의 불만에서 기회를 찾고 관습을 타파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혁신기업'이라는 경영이념에 따라 고객의 생활에 가치를 향상시키는
유통서비스 기업으로의 가치를 실현하고 회사의 영속과 기업 성장을 위한 주주 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가치와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우정섭 후보자]

(주)신세계 재무담당, 신세계사이먼 지원 담당, 신세계 전략실 재무팀장 및 재무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주)신세계 지원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재무·관리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재무 및 관리 분야에서 백화점과 아울렛을 포함한 유통사업 전반을 두루 경험하였으며, 전사 차원의 의사결정 체계와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리스크 관리, 수익성 중심 경영 강화를 통해 회사의 재무 안정성 확보와 경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책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최난설현 후보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자문위원 및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법률관련 자문·심의위원으로 활동해온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면서 독립적이고 유용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감사위원으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2월 23일

보고자 : 우 정 섭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2월 23일

보고자: 최난설현 (서명 또는 날인)



※ 기타 참고사항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4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최난설헌)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난설헌	1975.02.18	사외이사	분리선출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기간	내용	최근3년간 거래내역
최난설헌	연세대학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2024~	(現) 한국소비자원 비상임이사	해당 없음
		2023~	(現)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자문위원	
		2022~	(現) 금융위원회 법률자문 위원	
		2015~	(現)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최난설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의 추천 사유

[최난설헌 후보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자문위원 및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법률관련 자문·심의위원으로 활동해온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면서 독립적이고 유용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감사위원으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 다목, 라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2월 23일

보고자 : 최난설현 (서명 또는 날인) 

※ 기타 참고사항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4)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70억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4)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9억
최고한도액	70억

※ 기타 참고사항

-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6년 03월 16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는 2026년 3월 16일까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이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안내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제62기 정기 주주총회부터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3월 14일 오전 9시~ 2026년 3월 23일 오후 5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공인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 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당사는 주주들의 원활한 참석을 위해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
2026년 3월 24일 10시에 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총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